

## Wendy L. Widder 박사, Daniel, 세션 2

### 해석적 질문 및 문제

© 2024 Wendy Widder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Dr. Wendy Whitter와 그녀의 다니엘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 해석적 질문과 이슈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몇 가지 해석적 질문과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해석적 질문을 살펴보고자 하며, 지난 강의에서 소개했지만, 그것은 성경의 어느 책, 어느 구절에서든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때로는 좋은 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질문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르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글인가? 이런 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인간의 저자, 날짜, 청중에 대한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썼나요? 언제 썼나요? 그들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나요? 우리는 역사적 배경이나 역사적 맥락에 관한 질문을 살펴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건 뒤에 숨겨진 역사적 상황은 무엇이었나요? 저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가끔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작가가 이 특별한 책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 가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때로는 다른 답에 대한 답을 찾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한 답이 다른 답에 대한 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해지지만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장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르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크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르는 일종의 글쓰기, 일종의 문학이다.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에 대해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이 신약의 마태복음 5장을 선택하고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에 있다고 대답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장르 구분을 하신 거죠. 복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사와 장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읽고 있다면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신입니다. 편지예요. 읽으면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음, 당신은 시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입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만으로도 장르에 대해 꽤 관찰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산상 수훈은 복음인 마태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로와 집사에 관한 바울의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입니다. 특히 그것은 그의 목회 서신 중 하나입니다. 읽어보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며 시편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서신서, 시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테고리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범주의 복음서를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범주의 서신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시? 그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글썄,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장르는 성경이나 정경의 구성에서 나옵니다. 캐논의 조직.

그래서 신약성경을 보면 네 개의 복음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역사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이 모든 서신이나 편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쾌한 묵시록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황하고 나갑니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토라나 오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서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본은 대부분 유사한 책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것들은 함께 그룹화되어 있으며 장르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서 다니엘은 어디에 속합니까? 트릭 질문입니다. 그냥 말하면 선지자입니다. 예, 특정 정경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를 보면 문제가 생긴다. 다니엘은 유대인, 특히 히브리어 정경에서 다니엘은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저술이라고 부르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왜 다른가요? 성경의 목차를 보면 상당히 명확한 장르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각 정경에서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봅시다... 먼저 히브리어 정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정경은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토라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도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정경의 세 가지 범주입니다. 토라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어 정경의 선지자들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합니다. 판사. 루스가 아니야, 사무엘. 역대기도 아니고 에스라서도 아닌 왕서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애가가 아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열두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라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다.

그 다음에는 저작물이라고 불리는 세 번째 범주가 있습니다. 글은 그 밖의 모든 것입니다.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몇 권의 책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럼, 루스. 에스더. 우리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건너뛰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 애가, 역대기를 건너뛰었습니다. 내가 다 받았나요? 그리고 다니엘. 직업. 고마워요, 읍.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을 어디에 둘까요? 토라. 선지자. 저. 그 글 중에는 다니엘도 있습니다. 이 책들이 다른 모든 것 외에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와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포로 이후 또는 여전히 디아스포라 기간 동안 그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배의 이면에서 일어난 서사, 이야기, 이야기들입니다. 연대기는 흥미로운 것입니다.

역대기는 수많은 왕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다시 쓴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됩니다. 유배지 반대편에서 전해진다.

따라서 여기에서와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찾을 수 있지만 다른 관점과 다른 목적으로 전달됩니다. 룻. 음, 루스는 재판관 시대에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이 왜 여기 있어요? 글쎄, 당신은 말할 수 있고, 내 생각에 히브리어 정경이 적어도 다니엘서와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 책이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유배 이후의 일을 내다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글에 포함된 이유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글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책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라는 가장 오래된 모음집입니다. 선지자들(The Prophets)은 두 번째로 오래된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그 글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끝났을 때 일어난 모든 것 입니다. 아마도 이 책들은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의 모든 것 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이 나중에 데이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나중에 날짜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자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떨어진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그들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언약으로 부르십시오.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언약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언약경찰이라고 부르길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치안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와.

언약에 순종하십시오.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언약을 암시하는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야. 그러므로 그는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 정경의 다니엘이 선지자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론이며, 저술물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이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현인처럼 묘사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지혜의 자질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저서에는 지혜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니엘서가 지혜의 풍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다니엘서가 에스더서와 많은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외국 법원에 거주하고 봉사하는 이스라엘인이나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법정 설화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어서 두 권의 책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마지막 제안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질문과 가능한 대답을 탐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어 정경은 두 번째 6장보다 처음 6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는 두 가지 장르, 즉 매우 다른 장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서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종말론적인 예언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뚜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정경은 선택을 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에 따라 분류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은 유배와 유배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정경의 이 부분, 즉 다니엘서의 이 부분이 영어 정경이 집중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선지자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놀려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잠시만요. 그건 그렇고, 그 자체로 전체 연구가 될 수 있는 기독교 정경 또는 영어 정경의 목차는 칠십인역의 책 순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칠십인역 단기 집중 코스입니다. 구약성서의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성경의 최초 번역은 그리스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세계 제국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이주했고, 그리스어는 헬레니즘 세계의 상업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시대에 히브리어를 잃어서 그들의 신성한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정경은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이 칠십인역이다. 때로는 단순히 LXX일 때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성경(간단하게 유지하기 위해 영어 정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이 이 책들의 목차 또는 순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들의 순서는 아닙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은 왜 이 목차가 책을 다르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닌가? 내 목록은 어디에 있나요? 따라서 이 정경, 즉 영어 정경에는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오경, 즉 토라와 일치하며 동일합니다.

같은 다섯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동일한 책이 히브리어 정경과 마찬가지로 영어 정경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정경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역사서로 분류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그룹에서 히브리어 정경의 룻기가 저술물의 일부였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역대기는 글의 일부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모두 세 번째 범주인 저작물에 속합니다. 영어 캐논, 그것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선지자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소렐은 정말 크기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사람들은 보통 다음 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애도를 던집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주요 선지자는 아닙니다. 에스겔, 다니엘, 이들이 바로 대선지자들입니다.

소선지서들은 책들이 더 작기 때문에 소선지서들입니다. 12개가 있습니다. '12'라고도 불립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말라기까지.

나는 방이 부족했다. 12시입니다. 저 사람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범주를 제가 지운 히브리어 범주와 비교한다면 다니엘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글 속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선지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날에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마지막 범주는 우리가 시와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 솔로몬의 노래가 있고 엄밀히 말하면 애가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엔 다 얻은 것 같아.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선지자들 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쉬운 대답은 이 카논이 어떤 이유에서든 후반부, 즉 종말론적 슬래시 예언이라는 장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분류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대답을 원하더라도 대답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질문을 탐색하고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하는 것이 공정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질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신약성서는 그것을 입증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다니엘을 좀 다른 동물로 봅니다. 따라서 왜 다른 순서가 있는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 경험상 내 배경의 초점은 전반부를 거의 제외하고 후반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도덕적인 면이 있는 좋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 되세요.

용기를 내어 다니엘이 되어 보세요. 하나님 편에 굳게 서십시오. 이것이 그 여섯 장에서 나오는 도덕입니다.

정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것은 영어 표준을 반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장르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우리를 원래의 질문으로 되돌립니다.

서술형인가요? 네. 예언인가? 확신하는. 종말론적인가? 예.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해석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내러티브를 해석하는 방식은 예언에 도달하는 방식과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큰 질문, 더 큰 대답이 필요하지만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장르 질문입니다. 재미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데이트 이야기를 해보자.

작성자 및 날짜.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누가, 언제 썼는가? 저자, 날짜. 누가 썼니? 언제 썼나요? 글썬요, 당신은 거기 앉아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원전 6세기에 그것을 썼습니다. 오른쪽? 다니엘이 해냈습니다.

그는 6세기에 그것을 썼습니다. 충분히 쉽습니다. 계속하세요.

글썬요, 그렇게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다니엘서는 책의 시작 부분에서 누가 그것을 썼는지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제라고 부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시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일부를 읽으면 선지자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선지자가 본 환상이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조금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바울은 ...에 있는 교회로 갑니다.

많은 성경 책들, 특히 구약성서에는 그러한 머리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쓴 사람의 진술. 그리고 다니엘서 전반부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썼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이야기 속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요. 그래서 만약 다니엘이 그것을 썼다면 그는 마치 이야기 밖의 전지한 서술자인 것처럼 그것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을 캐릭터로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전반부에서 해당 이야기의 저자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후반에는 그 비전.

설정되어 있으며 1인칭 보고서로 전달됩니다. 나 다니엘은 강가에 있었습니다. 등등. 그래서 나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비전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러한 보고서는 적어도 일부는 제3자 서술의 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7장이 시작됩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침상에 누워 꿈을 꾸니라 글썄, 그것은 내러티브이고 제3자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내가 침대에 누워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에는 이러한 보고서가 3인칭 서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컬렉션을 가져와서 함께 모아서 프레임워크를 추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다니엘은 6세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책의 후반부에서 1인칭을 사용하는 것과 그 이야기가 다니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에 크게 근거합니다.

따라서 그가 쓴 것이 틀림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썼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것을 썼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그럼 또 어렵네요. 복잡해요.

저자에 대한 두 번째 관점, 나는 이것을 이것을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견해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견해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초기 날짜라고도 합니다. 뭐, 빠르면 늦은 것과 대비가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초기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던 6세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견해, 보수적 견해, 초기적 견해가 그것이다. 그리고 흔히 비판적 관점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판적 학문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누가 원고를 어디서 발견했는지에 대한 핵심,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모든 종류의 비판적 문제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는 이와 같은 주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역사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역사적 비판적 견해. 늦은 날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견해는 다니엘서를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익명의 유대인이 썼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다른.

여기 다니엘은 망명 중입니다.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익명의 유대인입니다. 언제입니까? 기원전 2세기 동안. 그것이 무작위로 들린다면, 여기서 이 방대한 일정이 있었던 첫 번째 강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춘 것은 기원전 2세기였습니다. 이 사건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치하의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사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안티오칸 박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셀레우코스 왕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대 역사에서 정말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판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누군가가 어느 날 앉아서 이것을 모자에서 꺼냈나요? 나는 2세기 팔레스타인에 살던 익명의 유대인이다. 왜? 글썄, 몇 가지.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견해는 다니엘이 이러한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다니엘은 일인칭으로 기록되었다.

이 관점은 좀 더 흥미롭습니다. 음, 제3자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책 전체를 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여기에 내 생각을 모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3인칭으로 시작했다가 바뀌면 매우 이상할 거라고 하더군요. 다니엘이 글을 쓴다면 왜 모든 일을 1인칭 시점에서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하나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주장은 역사적 어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당신이 어떤 학자인지에 관계없이 몇 가지 역사적 질문에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서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니엘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책에 이름이 적어도 네 번 등장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우스, 메대 사람 다리우스, 메대 사람 다리우스. 우리는 바빌론과 페르시아에 대한 꽤 광범위한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반드시 역사적이지는 않은 또 다른 문제는 장르 문제에 가깝습니다.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부르신다면, 저는 그것을 예언서라고 부르기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현재의 청중에게 이해할 수 있고 관련성이 있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 특히 11장에 나오는 몇 가지 내용에 도달하면 성경의 어느 예언과도 달리 매우 상세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에 도달할 때까지 약 10번 정도 더 강의를 해야 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이는 그들의 역사에서 이 특정 시기를 자세히 설명하는 역사 수업과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만약 여러분이 이곳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선지자 다니엘이 여러분에게 이 역사를 말하고 있거나 이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청중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이 역사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관련성 질문입니다. 원저자는 청중과 관련된 메시지를 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묵시적인 자료에 도달하면 다니엘은 관련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장르와 관련된 또 다른 점은 묵시록이 실제로 두 번째 성전 시대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시문학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문학이다.

대부분. 그들은 세상을 고치기 위해 신성한 개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고쳐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공간에 침입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격변적인 세계를 리메이크합니다.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 음, 이것은 두 번째 성전 시대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번성하고 있으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음, 이 묵시적인 문학이 여기서 다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장르에 관련된 질문일 뿐입니다.

이 묵시적인 장르를 따르는 많은 두 번째 성전 문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늦은 날짜를 설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이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제외한 묵시문학에서 우리는 사후 예언이라는 특정한 종류의 장르를 알고 있습니다. 행사 후. 나는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겠다.

사건 이후 예언. 글썄, 그것은 실제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게 역사죠, 그렇죠? 음,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조지 워싱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미국의 역사에 대해 우리에게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한 캐릭터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조지 워싱턴이 아닙니다.

여기 이야. 제가 1990년에 이 일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인물을 맡아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 워싱턴을 역사를 말하는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독립 전쟁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는 남북 전쟁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미국 역사를 완벽하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약간 벗어난 여기 특정 지점에 도달합니다.

별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략 1990년으로 가정할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정확하지 않은 것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애야, 난 내 이력을 기억해야 해. 아마도 그는 조지 HW 부시(George HW Bush)가 두 차례나 대통령을 지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글썄,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실제 미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에게 약간의 허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할 때, 그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약간 엉뚱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서에 넣으면 후기일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의 누군가가 역사를 마치 예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그는 약간 벗어납니다. 완전히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금 벗어난 이유는 그가 실제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예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는 그것을 틀렸습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일인데, 당신은 그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꿈을 꾸겠어요? 글썄요, 꿈은 꾸지 않았어요.

사실 꽤 알려진 장르입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존경받고 존경받는 인물의 이름을 채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니엘은 다니엘의 이름을 취하고 그에게 실제로 어느 시점까지의 역사인 이 예언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지금 실제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이 익명의 작가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잘 알려진 장르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장르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다르게 대답할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만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르를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르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장르는 도덕적 범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알려진 장르라면 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글썄요, 요점이 뭐죠? 왜 귀찮게? 글썄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날 것처럼 예언하는 이런 장르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움직이도록 예언된 그대로 역사를 움직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그것을 듣는 청중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격려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꽤 복잡한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은 책의 후반부에 도달하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저자 날짜에 대한 이 질문이 사람들의 정통성에 대한 리트머스 테스트로 자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주권을 확인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진리를 확증합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6세기에 실제 다니엘이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엔 그건 좀 단순한 것 같다. 꽤 복잡한 장르 문제를 약간 축소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양쪽의 입장을 기꺼이 들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진 신실한 해석자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누군가가 정말로 성경을 믿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고 싶은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저자 낱짜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도 그렇고 설정도 그렇고. 글썄, 그것은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6세기 다니엘이었다면 그의 청중은 누구였는가? 글썄, 그것은 망명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격려와 위로까지. 다니엘서의 저자가 기원전 2세기의 익명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구체적으로 그의 청중은 안티오키아의 박해 아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부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목시적인 장의 목적은 언젠가는 의인이 보상을 받고 악인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독자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낱짜 관점에서 나오는 격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요 문제입니다.

다니엘서는 장르, 저자, 연대, 독자, 목적에 있어서 쉽게 단순한 범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책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사해요.

이것은 Dr. Wendy Whitter와 그녀의 다니엘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2, 해석적 질문과 이슈입니다.